광주·전남 '공천 전쟁' 막 올랐다

4·9 총선 예비후보만 99명…전례없는 경쟁

광주 광산 10명, 나주·화순 9명 등록 '최다'

"총선 티켓을 잡아라." 제18대 국회의원선거 예비후보자 등록자들의 공천 경쟁이 치열하다.

광주·전남 선관위는 27일 지난달 11일부터 접수하고 있는 예비후보자 등록에 광주 42명, 전남 지역 57명 등 모두 99명이 등록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구여권 지지기반인 광주·전남지역의 경우 범여권 진영의 수도권 전멸 시나리오가 현실화되는 상황인데다 선거구 획정·정당 공천 여부 등을 지켜보다 후보 등록을 할 입지자들의 출마가 봇물을 이룰 것으로 예상되면서 다음달부터 '총선 티켓 전쟁'이 본격화할 전망이다.

광주의 경우 7개 선거구에 42명(광산구 10명, 남구 8명, 북구갑 7명, 북구을 6명, 동구·서구갑 각 4명, 서구을 3명)의 예비 후보들이 등록했다. 정당별로는 대통합민주신당이 21명으로 절반을 차지했으며 민주당 13명, 한나라당과 민주노동당 각 3명, 한국사회당과 무소속 각 1명 등이었다.

13개 선거구에 57명이 등록한 전남 지역도 대통합민주신당이 23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민주당 12명, 한나라당 12명, 무소속 8명, 민주노동당 2명 등이었다. 나주·화순이 9명으로 가장 많았고 순천 8명, 여수 갑, 광양·구례, 담양·장성·곡성(이상 5명), 목포, 고흥·보성, 강진·완도, 해남·진도(이상 4명)순이었다.

특히 일부 지역구의 경우 같은 정당 소속의 예비후보 등록자가 몰리면서 현역 의원들과 치열한 총선 티켓 경쟁을 벌일 것으로 전망된다.

광주에서는 광산구에서 대통합민주신당 소속 예비후보가 6명이나 공천 경쟁에 나섰고 남구(5명), 북갑(3명), 북구을(4명)에서도 당 공천이라는 예선전부터 치열하게 경쟁을 벌이고 있다.

전남에서도 목포, 순천, 나주·화순, 담양·장성·곡성, 고흥·보성에서 신당 예비후보가 3명씩 나서 일전이 불가피하다. 민주당도 광주 동구·서구을·남구·광산에서 2명씩, 북갑에는 3명의 예비후보가 공천 경쟁에 뛰어들었다.

나주·화순에서는 한나라당 예비후보가 4명이나 등록, 공천 경쟁을 벌이게 됐다.

예비후보들의 연령은 50대가 광주 20명, 전남 22명 등 42명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40대가 33명(광주 14명·전남 19명), 60대가 18명(광주 6명·전남 12명), 30대가 4명(광주·전남 각 2명), 70대가 2명(전남 2명)이었다. 여성 후보는 6명(광주·전남 각각 3명)이었다.

현역의원들 가운데서는 광주의 경우 대통합민주신당의 양형일(동구), 염동연(서구갑), 지병문(남구), 김태홍(북구 을), 김동철(광산) 의원, 전남에서는 이상열(목포), 김성곤(여수 갑), 주승용(여수 을),서갑원(순천), 우윤근(광양·구례), 채일병(해남·진도), 민주당의 최인기(나주) 의원이 등록했고 나머지 8명의 현역 의원들은 이날까지 등록하지 않았다.

/홍행기기자 redplane@kwangju.co.kr
/김지을기자 dok2000@kwangju.co.kr

신당 지도부 '수도권 출마론' 확산

"손학규·강금실 솔선 출마해야"

정동영 "천천히 생각해 보겠다"

대통합민주신당 지도부가 4월 총선에서 '수도권 출마'의 배수진을 쳐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어가고 있다.

손학규 대표, 강금실 최고위원 등 상징성을 갖춘 인물들이 전패의 위험에 내몰리고 있는 수도권에 몸소 출전, 국민에게 대안 야당의 존재를 각인시켜야 한다는 것이 이 주장의 요체다.

우선 손 대표가 솔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측근들 사이에서 나오고 있다. 여전히 당대표로서 총선을 총 지휘하고 접전지역을 지원해야 할 시점에서 지역구 출마는 한 석을 얻고 다른 지역의 여러 의석을 잃는 상황을 만들 수 있다는 우려가 있는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현재의 위기 상황이 총선 전까지 이어진다면 출마가 불가피하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손 대표가 출마를 결심할 경우 우선 떠오르는 지역구는 경기도 파주. 이 지역은 경기도지사 시절 LG필립스 LCD 공장유치로 인기가 높은 곳이다. 또 최근에는 서울에서 출마할 가능성도 지적되고 있다.

강금실 최고위원 등의 수도권 출마 여부도 관심거리다. 강 전 장관은 자신의 행보에 대해 말을 아끼고 있지만 당이 요구할 경우 '결단'을 내릴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 주변의 관측이다. 당 일각에서는 김한길 의원의 불출마 선언으로 자리가 빈 서울 구로을에 출마설도 나온다.

하지만 문제는 정권 박탈의 책임을 지고 반성의 모습을 보여줘야 할 정동영, 김근태 전 의장과 천정배, 신기남, 김원기, 정세균, 정동채 의원 등 과거 열린우리당과 참여정부 지도 인사. 이들의 현재까지 주변의 눈치를 보며 호남지역구 출마와 전국구 앞순번 배치 등을 노리는 이기적 행보를 하고 있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

이에 따라 신당 지도부의 수도권 출마에도 미동조차 하지 않을 것이란 비관적 전망마저 나온다.

특히 대선 패배의 주역인 정동영 전 통일부 장관의 경우 불출마 선언과 함께 당분간 정치일선에서 물러나야한다는 측근들의 고언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여전히 정치행보를 계속하며 자신의 옛 지역구인 전주 덕진 출마를 기정사실화하는 것 아니냐는 추측을 낳게 하고 있다.

한편 정 전 장관은 27일 계룡산 산행전 수도권 출마 가능성에 대한 질문에 "어떻게 하는게 평화 민주세력에 도움이 되는 것인지 차차 생각해 보겠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대통합민주신당 총선기획단장으로 내정된 신계륜 사무총장과 우상호 대변인이 27일 당산동 당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민주당과의 통합, 당수뇌부의 총선출마 여부 등 총선입장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공천괴담' 떨고 있는 신당 호남의원들

여의도發 살생부…孫 대표도 "호남부터 물갈이"

18대 총선을 앞두고 '공천괴담'의 태풍이 호남지역 의원들을 향해 몰아치고 있다.

당장 대통합민주신당 일각에서는 호남지역 국회의원 살생부 명단이 돌고 있다.

광주지역 국회의원 4~5명과 전남지역 국회의원 3~4명, 전북지역 의원 4~5명이 공천 배제 대상으로 적시돼 있다.

의정 및 대선 활동 부진, 지역 여론 악화, 부적절한 사생활 등 공천 배제에 대한 간략한 이유도 적혀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이에 대해 당내에서는 지도부 모 인사가 개인적으로 정보를 수집한 것이 흘러나갔다는 설과 여의도 정보지에서 흘러나왔다는 설이 제기되고 있으나 확실치는 않다.

이런 상황에서 당 지도부에서는 연일 '물갈이'를 거론하고 있어 '공천괴담'은 더욱 확산되고 있다.

손학규 대표는 27일 KBS 일요진단에 출연, "호남에서 제대로 변화하는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면 (호남이) 얼마든지 우리에 대한 지지를 철회할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손 대표는 이어 "호남 기반이 튼튼할수록 거기서 신당의 변화를 일굴 분들이 나와야 한다는 요구가 호남에서부터 나오고 있다. 아주 좋은 징조"라고 밝혔다.

이는 호남지역 공천에서 대대적인 인적쇄신에 나서겠다는 뜻으로 해석되고 있다. 여기에 정균환 최고위원도 지난 25일 "총선때마다 20~30%의 교체는 있어왔고 이번에는 그 이상 교체돼야 국민들이 쇄신으로 받아들일 것"이라고 말해, 호남지역의 물갈이을 강력하게 시사했다.

그는 이어 "손학규 대표의 쇄신 의지는 무척 강하다. 현역 의원 인적 쇄신이 예외 없이 혹독하게 이뤄질 것이다"고 덧붙였다.

/임동욱 기자 tuim@kwangju.co.kr

특별기고

새 정부 출범과 광주·전남 경제 과제

김 영 용

2008년 무자년의 한국 경제는 해외 경제 둔화와 국내 분위기 반전이라는 상반된 여건에서 작년의 4.8%보다 높은 5% 이상의 성장률을 보일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상반된 여건이란 둔화되는 세계 경제와 국내 경기 활성화 분위기를 말한다.

국제통화기금은 금년의 세계 경제 성장률이 미국의 '비우량주택담보대출(서브프라임 모기지)' 부실 여파에 따른 미국과 일본, 그리고 유럽 지역의 경제 둔화와 중국의 인플레이션 우려가 겹쳐 작년의 5.2%보다 조금 낮은 4.8% 정도로 예상하고 있다. 여기에 유가 상승이 지속된다면 세계 경제는 더 둔화될 수도 있다.

세계경제 환경은 한국이 독자적으로 바꿀 수 없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잘 선택한다면 5% 이상 성장하는 것은 그다지 어렵지 않을 것이다.

특히 기대되는 것이 시장 경제와 기업에 우호적인 정부의 출발이다. 국부 창출의 주역은 기업이고 기업의 운명을 가름하는 것은 기업가 정신이니만큼 기업가 정신이 십분 발휘될 수 있는 기업 환경을 조성하는 일이 가장 중요하다.

프랑스의 재상 콜베르가 프랑스의 노(老)기업인들을 초청하여 "내가 당신들에게 무엇을 해 드릴까요?" 라고 물었을 때 그 노 기업인들은 "우리를 내버려 두시오, 그 대신 튼튼한 화폐를 만들고 도로를 건설해 주시오"라는 에피소드가 기업인들이 원하는 바를 정확하게 말해주고 있다.

앞으로 출범할 이명박 정부를 흔히 실용주의라고 부른다. 물론 실용주의는 철학 기반이 취약하다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 자칫 공리주의로 흐른다면 국정이 난맥으로 흐를 수도 있다.

바람직한 실용주의의 방향은 개인의 자유와 책임을 강조하는 자유주의적 바탕 위에 바로 서야 지난 10여 년 동안 망가진 경제 시스템을 고칠 수 있다.

더구나 '작은 정부'와 '시장경제' 원리의 바탕위에서 실용주의를 추구한다면 경제주체 간 경쟁은 물론 지역 간에도 경쟁이 자원 배분의 근간이 될 것이다.

그런 점에서 특정 사안과 관련하여 지역 할당을 기대하기는 더욱 어려울 것이다. 결국 광주·전남만이 가질 수 있는 경쟁력을 높이는 수 밖에 없다. 이는 물론 타 지역도 마찬가지다.

이제 각 지역은 중앙정부로부터 무엇을 얼마나 얻을 것인가보다는 지역이 가진 자원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를 심도 있게 생각해야 한다.

스스로 열심히 노력했지만 역부족으로 해결이 안 되는 문제에 대해서는 중앙정부의 도움을 구하는 방법으로 전환해야 한다.

이명박 당선자가 지적한 '대불산업단지의 전봇대' 뿐만 아니라, 광양 컨테이너 항구의 자유무역항 실현을 위한 관세 철폐 등 진정한 지방자치제의 실현을 위한 법 정비 등에 특히 치중해야 한다.

기존 사고와 틀을 유지하면서 광주·전남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것은 난망하다. 도약에는 새로운 발상이 필요하다. 기존의 틀을 아예 버리고 새롭게 사고하고, 이를 바탕으로 지역경제 건설에 나서야 한다. 이는 곧 지역 경제 활동을 억압하고 있는 각종 법을 정비 또는 폐지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광양 컨테이너 항구는 홍콩처럼 자유무역항으로 선언하고 무역 관련 규제를 완전 철폐하는 것이다. 법인세도 대폭 인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중앙 정부와 조세권부터 정리해야 한다는 것이다.

기존의 방식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타 지역보다 앞선 결과를 얻어낼 수는 없다. 결국 광주·전남 지역경제는 새 정부 출범과 함께 '자유 경쟁'이라는 새로운 환경에 처하게 되므로 경쟁력을 높여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우선 기존의 틀을 깨뜨리는 생각의 변화가 있어야 한다.

〈전남대 경제학부 교수〉